

# 해명자료

<b>배포일시</b> 2019. 1. 29.(화) 11:00 (총 3매)	<b>보도시점</b> <b>즉 시</b>
<b>담당부서</b> 국립기상과학원 응용기상연구과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	<b>담당자</b> 과 장 하 종 철 과 장 이 상 보
<b>전화번호</b> 064-780-6752 032-560-7253	

기상청과 환경부는 인공강우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의 과학적 검증을 위하여 다부처 협력 인공강우 실험 계획을 수립(2019.1.17.) 하고 1월 25일 공동실험을 수행하였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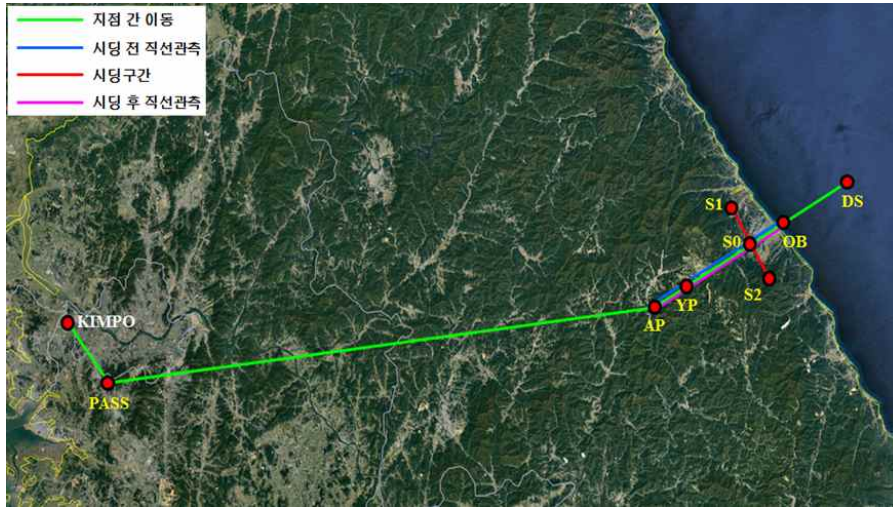
- 1월 29일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.

## 【 해명 내용1 / 보도내용 일부발취 】

<환경부·기상청 ‘서해 인공강우 실험’은 졸속이었다(조선일보, 2019.1.29.)>

- △ ... 또 기상과학원이 작년 11월 26일 확정된 “2019 기상 항공기 연간 운항 계획”에도 서해상 인공 강우 실험은 없었다. 기상과학원은 올해 평창에서 총 15회 인공강우 실험을 계획하고 있었다.
- △ 대통령 발언 직후 환경부와 기상청은 “25일 서해상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인공 강우 실험을 할 것”이라고 발표했다.

- 국립기상과학원의 ‘2019년도 1월 기상항공기 월간운항계획서(2018 12.20. 수정)’에 따르면, 1월 중 강원도 평창인근 또는 중부지방에서 인공강우 실험 등이 계획되었으며
- 동 계획에 의거, 미세먼지 저감 효과의 과학적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공동으로 2019년 1월 17일 ‘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 다부처 협력 인공강우 실험 계획’을 수립하였음.



예시 1: 평창지역 인공증우실험 및 구름관측을 위한 전체비행경로



예시 2: 경기남부지역 인공증우실험 및 구름관측을 위한 전체비행경로

□ 따라서, 사전계획된 실험을 한 것이므로 대통령 발언(1.22, 국무회의) 이후에 계획에 없었던 서해 인공강우 실험이 줄속으로 진행되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.

※ (지역) 경기도 일대(주목표 : 수원) / (참여장비) 기상항공기, 기상선박, 지상관측 등

【 해명 내용2 / 보도내용 일부발취 】

△ 기상과학원이 올해 인공 강우 실험을 총 15회 벌이겠다고 확보한 예산은 8억 8900만원이다. 회당 5920여만원의 예산이 드는 셈이다.

- 1회 인공강우 실험 시 사용되는 구름씨앗(연소탄) 비용은 720만원으로 2019년 인공강우 관련 연간 예산에는 실험비용 이외 인건비, 노후장비 교체비용 등이 포함됨
- 따라서, 인공 강우 1회 추가 실험시 592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며, 당초에 계획된 연간 계획에 의한 실험임을 알려드립니다.